

K O S T A T S t a t i s t i c s P L U S

세대별 사회안전 및 환경의식



박시내
경인지방통계청 지역통계과장
/ 사회학 박사
sinae1215@korea.kr

이윤정
고용통계과 사무관
yoonlee0@korea.kr

우리 사회 곳곳에서 MZ세대가 일으키고 있는 열풍이 뜨겁다. MZ세대란 1980년대 초부터 1990년대 중반 사이에 태어난 세대를 뜻하는 밀레니얼 세대(Millennials)와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중반 사이에 태어난 세대를 뜻하는 Z세대(Generation Z)를 통칭하는 신조어이다. MZ세대는 디지털 기술 발전 시대에 성장했으며, SNS를 통한 소통과 공감 문화에 매우 익숙하다. 이들은 자유로운 사고와 현재의 행복을 추구하는 한편 자기중심적인 소비문화를 지향하고,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지양하는 등 기성세대와는 다른 사고방식을 갖는다.

이 글에서는 MZ세대를 중심으로, 세대별 사회안전 및 환경 의식 현황을 짚어 보고자 한다. MZ세대는 환경 및 기후변화, 신종 질병에 민감한 세대로, ‘엠제코 세대(MZ세대+ ECO)’로 불리기도 한다. 일상에서 기후변화를 체감하면서 위기의식을 느낀 청년 세대가 환경을 중요한 가치관으로 삼고, 환경(지구) 보호를 실천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한편 이들은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 등 신종 바이러스 및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등을 경험한 세대로 안전과 보건 관련 문제에 매우 민감하다.

이 글에서는 세대별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 준법 수준, 재난 발생 시 행동 요령 인지도 등을 통계청 자료(인구총조사, 사회조사 등)를 이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MZ세대의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과 방지 노력 등을 짚어 보려 한다.

I. 들어가며

“MZ세대는 환경과 기후변화에 관심이 많으며,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 등 각종 신종 바이러스를 경험한 세대”

오늘날 ESG(환경·사회·지배구조)에 대한 열풍과 함께 MZ세대의 가치관 및 소비 성향, 행동양식에 대한 관심이 높다. MZ세대는 M세대(Millennials)(1980~1994년생)와 Z세대(Generation Z)(1995~2005년생)를 통칭하는 용어로 이들은 기성세대와는 다른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을 보인다.

MZ세대의 소비 트렌드를 일컫는 용어로는 현재 자신의 행복을 가장 중시하며 소비하는 ‘올로(YOLO)’, 가치를 소비한다는 ‘미닝아웃(Meaning Out)’, 소비로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는 ‘플렉스(Flex)’, 재테크에 관심이 많으면서 적극적·합리적 소비로 현재의 가치와 행복을 추구하는 ‘재렉스(재테크+플렉스)’,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고자 하는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의 구매로 의사를 표현하는 ‘바이콧(Buycott)’ 등이 있다.

MZ세대는 환경과 기후변화에 관심이 많아서 ‘엠제코세대(MZ+ECO)’로 불리기도 한다. 일상에서 기후변화를 체감하면서 위기의식을 느낀 청년 세대가 환경을 중요한 가치관으로 삼고 환경 보호를 실천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사회가 선진화될수록 ESG와 연관된 소비 성향이 강화될 소지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매킨지 & 컴퍼니’의 조사 결과(2020년)를 살펴보면, 국가 간 비교에서 우리나라 청년은 친환경 제품에 대한 민감도(친환경 제품에 더 비싼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설문조사 대상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¹⁾

이는 MZ세대가 기성세대보다 환경이나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민감도는 높게 나타나지만, 이것이 실질적인 친환경 제품 구매 행위로 반드시 연결되는 것은 아님을 시사한다.

한편 MZ세대는 기후변화와 함께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 등 각종 신종 바이러스를

1) 매일경제(2021. 6. 21), 「MZ세대 마음 얻지 못한 ESG는 실패한다」

경험한 세대이다. 또한 세월호 참사(2014년), 이태원 참사(2022년) 등 대형 안전사고를 겪으면서 안전 의식에 대해 경각심이 높아진 세대이다.

1인 가구 비중이 높고, 원룸·고시텔 등에 거주하는 비중이 높은 MZ세대는 사회안전(주거 안전, 화재, 범죄 등) 문제에 노출되어 있다. 2022년 홍수로 인한 반지하 침수 사태에서도 드러났듯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MZ세대 1인 가구는 자연재해, 화재, 범죄 등 안전 문제에 취약하다.

II. 주요 특성

1 기본 특성

“수도권 거주 비중은 Z세대 50.2%, M세대가 54.9%로 M세대의 수도권 거주 비중이 높아”

MZ세대는 16,299천 명으로 총인구의 32.5%를 차지하며, 그중에서 M세대는 10,330천 명(20.6%)이고, Z세대는 5,969천 명(11.9%)이다. X세대는 13,071천 명으로 총인구의 26.1%를 차지하며, 베이비붐세대는 7,022천 명(14.0%)이고, 시니어세대는 7,645천 명(15.2%)이다.

세대별 평균연령은 Z세대가 20.3세, M세대가 33.1세, X세대가 48.5세, 베이비붐세대가 60.7세, 시니어세대가 74.9세이며, Z세대와 M세대의 평균연령 차이는 12.8세로 Z세대가 M세대보다 약 13세 더 적다.

세대별 수도권 거주 비중을 보면, M세대가 54.9%로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 X세대가 50.8%, Z세대가 50.2%, 베이비붐세대가 47.5%, 시니어세대가 43.7%이다. 학업 및 일자리 등의 사유로 젊은 층의 수도권 거주 비중이 높는데, 특히 M세대의 수도권 거주 비중이 전 세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다.

성비(여성 100명당 남성 수)는 M세대가 106.3으로 가장 높는데, 이는 M세대 출생 시기에

남아 출생 성비가 높았기 때문이다. 다른 세대의 성비는 Z세대가 96.9, X세대가 100.9, 베이비붐세대가 97.5, 시니어세대가 74.9로 고령 세대로 갈수록 성비가 낮아지는데, 이는 여성의 수명이 남성보다 길고, 이것이 성비에 반영된 결과이다.

[표 1] 세대별 주요 특성

(단위: 천 명, 세, %)

	Z세대	M세대	X세대	베이비붐세대	시니어세대
출생연도 ('20년 기준(11월 1일) 연령)	1995~2005년 (14~25세)	1980~1994년 (25~40세)	1964~1979년 (40~56세)	1955~1963년 (56~65세)	1954년 이전 (65세 이상)
인구 규모	5,969 (11.9%)	10,330 (20.6%)	13,071 (26.1%)	7,022 (14.0%)	7,645 (15.2%)
평균연령	20.3	33.1	48.5	60.7	74.9
중위연령	21.1	33.7	49.1	61.0	74.0
수도권 거주 비중	50.2	54.9	50.8	47.5	43.7
성비	96.9	106.3	100.9	97.5	74.9

주: 1) 집계기준은 일반 가구+집단(시설) 가구임.
 2) 성비는 여자 100명당 남자의 수임.
 3) 세대 정의는 출생 연도로 구분함.
 4) 세대 구분은 경기연구원의 '2020 경기도민 삶의 질 조사'의 연구 결과를 따름.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조사(2020년).

2 경제적 특성

“전문·관리직 비중은 M세대 31.7%, Z세대 26.2%, X세대 23.3%로 나타남”

세대별 취업자 비중을 보면, X세대(77.9%)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M세대(77.4%), 베이비붐세대(60.8%)의 순으로 높다. 학생의 비중이 높은 Z세대는 취업자 비중(46.1%)이 낮은 편이며, 노동시장 은퇴 이후 세대인 시니어세대 취업자 비중은 31.6%로 가장 낮다.

취업자 중 전문·관리직 비중은 M세대(31.7%), Z세대(26.2%), X세대(23.3%), 베이비붐세대(9.9%), 시니어세대(3.7%)의 순으로 M세대의 전문·관리직 비중이 가장 높다.

세대별 종사상 지위를 보면, 임금근로자 비중은 Z세대(94.3%), M세대(85.1%), X세대(75.5%), 베이비붐세대(61.8%), 시니어세대(55.2%)의 순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임금근로자 비중이 감소한다.

반면 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무급종사자) 비중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아지는데, Z세대의 자영업자 비중은 4.8%에 불과하나, 시니어세대(37.0%), 베이비붐세대(31.4%), X세대(21.4%), M세대(13.2%), Z세대(4.8%)의 순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아진다.

[표 2] 세대별 경제활동 특성(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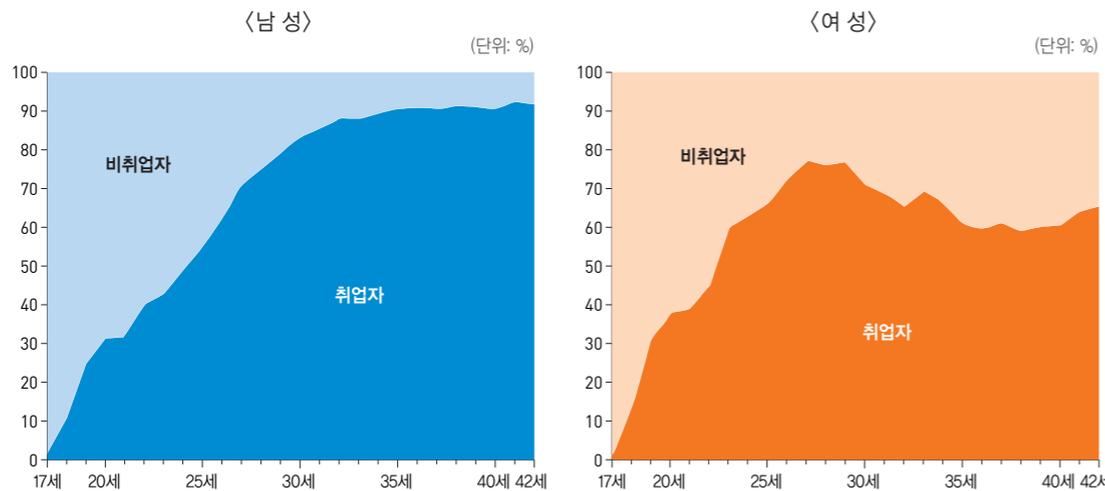
(단위: %)

		Z세대	M세대	X세대	베이비붐세대	시니어세대
취업자 비중		46.1	77.4	77.9	60.8	31.6
직업	전문·관리직 비중	26.2	31.7	23.3	9.9	3.7
	임금근로자 비중	94.3	85.1	75.5	61.8	55.2
종사상 지위	자영업자 비중	4.8	13.2	21.4	31.4	37.0
	무급종사자 비중	1.0	1.7	3.1	6.8	7.8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22년).

MZ세대의 연령별 취업자 비중 변화(그림 1)를 보면, 남성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취업자 비중이 증가하여 90%에 이르나, 여성은 20대 후반에 취업자 비중이 정점에 이르고, 이후 감소하다가 다시 완만히 상승하는 'M자 패턴'이 나타난다.

[그림 1] MZ세대의 연령별 취업자 비중 변화(2022년)



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22).

III. 사회안전

1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도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불안하다고 느끼는 비중은 M세대가 59.6%로 가장 높아”

우리 사회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세대별 인식도를 살펴보았다. 국가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시니어세대(32.3%), 베이비붐세대(29.6%), Z세대(21.9%)의 순으로 국가 안보에 대한 불안도가 높으며, 자연재해 역시 고령층의 불안도가 높다(시니어세대 27.8%, 베이비붐세대 26.7%).

교통사고의 경우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중은 M세대가 36.4%, Z세대가 34.0%, 시니어세대가 33.6%로,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M세대의 교통사고에 대한 불안도가 가장 높다. 한편 먹거리 위생 문제는 베이비붐세대와 M세대가 각각 20.3%, X세대가 18.1%로 다른 세대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정보 보안과 관련해서는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중은 베이비붐세대가 39.8%, M세대가 37.4%, X세대가 35.4%로 경제활동 참여가 활발한 베이비붐세대, M세대 및 X세대의 불안도가 높다.

[표 3] 세대별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도

(단위: %)

	Z세대	M세대	X세대	베이비붐세대	시니어세대
국가 안보 문제(전쟁 가능성, 북핵 등)	21.9	20.4	20.0	29.6	32.3
자연재해(태풍, 홍수, 지진 등)	16.1	19.3	19.4	26.7	27.8
건축물 및 시설물(붕괴, 폭발 등)	20.3	23.0	20.7	25.3	24.8
교통사고	34.0	36.4	29.6	33.3	33.6
먹거리 위생 문제(불량식품, 식중독 등)	14.4	20.3	18.1	20.3	17.5
식량안보 문제(곡물가 폭등, 식량부족 등)	15.1	20.4	21.1	24.6	20.5
정보 보안(컴퓨터 바이러스, 해킹 등)	34.3	37.4	35.4	39.8	34.2
개인정보 유출	51.1	59.6	53.4	55.4	46.4
신종 질병(신종 바이러스 등)	40.3	45.7	46.2	57.3	60.1
범죄	35.4	38.3	37.4	43.9	44.9

주: “우리 사회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 ‘전혀 안전하지 않다’ + ‘비교적 안전하지 않다’의 비중임.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2022년).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서는 불안전하다고 응답한 비중은 M세대가 59.6%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베이비붐세대가 55.4%, X세대가 53.4% 순으로, M세대가 개인정보 유출에 가장 민감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종 질병과 관련해서는 건강에 민감한 고령 세대일수록 불안전도가 높는데, 시니어세대가 60.1%, 베이비붐세대가 57.3%, X세대가 46.2% 순이다. 반면 가장 젊은 Z세대는 신종 질병에 대해 ‘안전하지 않다’는 응답이 40.3%로 가장 낮다.

2 사회안전 불안 요인

“MZ세대는 다른 세대에 비해 범죄에 대한 불안도가 높음”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불안 요인을 살펴보면, 신종 질병 발생(21.0%), 국가안보 문제(14.5%), 범죄(13.9%), 경제적 위험(13.3%), 도덕성 부족(9.6%)의 순으로 높다.

사회안전 불안 요인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국가안보 문제를 1순위로 꼽은 비중은 시니어세대가 19.3%, 베이비붐세대가 17.2%, X세대가 14.8%로 고령 세대에서 높다.

[표 4] 세대별 사회안전 불안 요인(1순위) 분포

(단위: %)

	전체	Z세대	M세대	X세대	베이비붐세대	시니어세대
국가안보 문제	14.5	13.0	10.5	14.8	17.2	19.3
자연재해	4.0	3.0	3.4	4.1	4.9	5.2
환경오염	8.4	6.5	8.5	9.5	8.4	7.0
인재	8.0	7.9	8.9	7.9	7.2	8.2
경제적 위험	13.3	14.7	14.6	15.0	12.9	8.9
도덕성 부족	9.6	12.1	10.4	10.4	8.2	6.1
신종 질병 발생	21.0	17.3	18.4	19.0	23.3	30.2
범죄	13.9	18.9	17.6	11.5	9.6	10.2
빈부격차	7.0	6.5	7.7	7.7	8.1	4.7
기타	0.2	0.1	0.2	0.2	0.3	0.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불안 요인은 무엇입니까?”에 대한 1순위 응답 비중임.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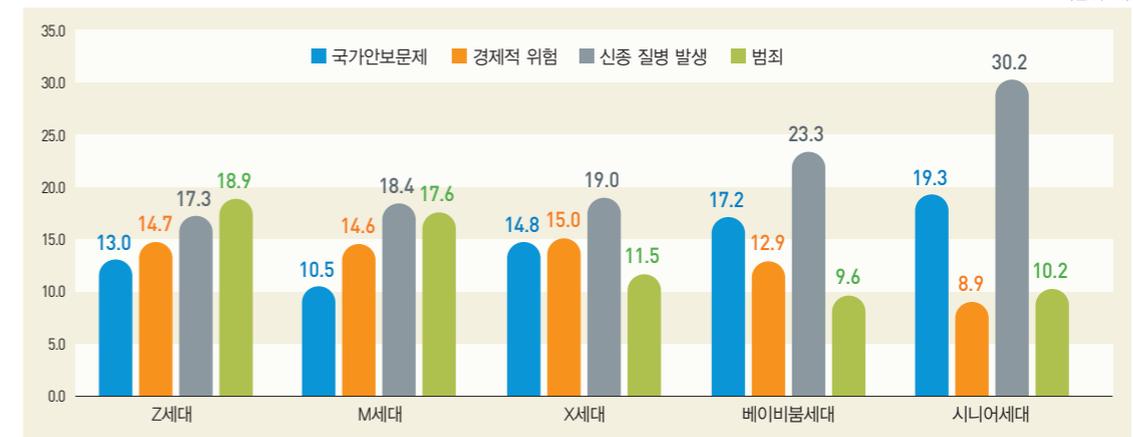
한편 경제적 위험을 1순위로 꼽은 비중은 X세대가 15.0%, Z세대가 14.7%, M세대가 14.6%로, 경제활동이 활발한 X세대와 MZ세대의 응답 비중이 높다.

도덕성 부족을 1순위로 꼽은 비중은 Z세대가 12.1%, M세대와 X세대가 각각 10.4%로 Z세대의 응답 비중이 가장 높다.

MZ세대는 다른 세대에 비해 범죄에 대한 불안을 1순위로 응답한 비중이 높는데, Z세대는 18.9%, M세대는 17.6%로 다른 세대보다 범죄에 대한 불안도가 높다.

[그림 2] 세대별 사회안전 불안 요인(1순위) 분포

(단위: %)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2022년).

3 준법 수준

“여성이 남성보다 스스로의 준법 수준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

나의 준법 수준과 타인의 준법 수준을 성별로 비교해 보면, ‘잘 지킨다’고 응답한 비중은 전체가 82.6%, 남성이 80.4%, 여성이 84.7%로 여성이 남성보다 스스로의 준법 수준에 대해 더 긍정적(+4.3%p)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타인의 준법 수준에 대해 ‘잘 지킨다’고 응답한 비중은 전체가 57.3%, 남성이 57.5%, 여성이 57.1%로 성별 간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세대별로 비교해 보면, 자신의 준법 수준에 대해 ‘잘 지킨다’고 응답한 비중은 시니어세대

(85.6%), 베이비붐세대(83.7%), X세대(83.1%), M세대(80.7%), Z세대(80.2%)의 순으로 높으며, 고령층이 청년층보다 스스로의 준법 수준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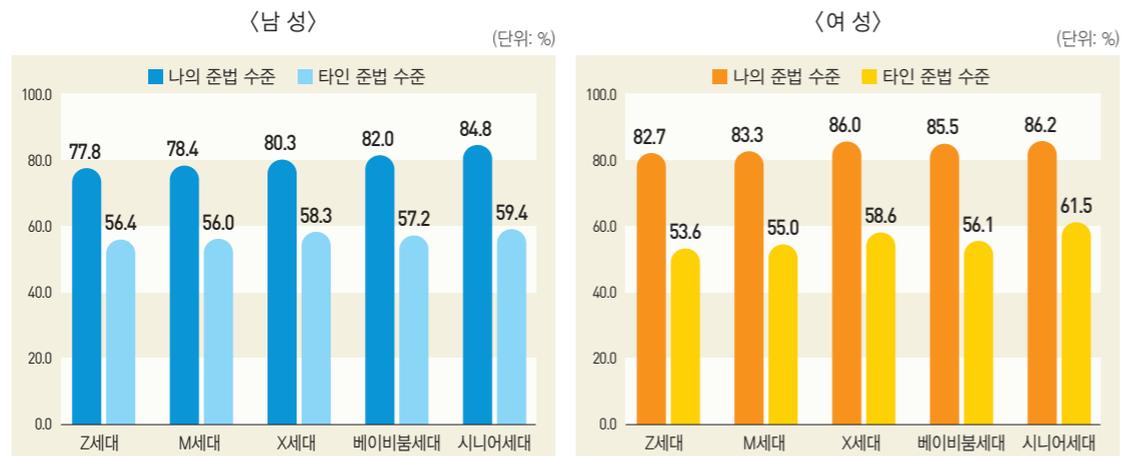
타인의 준법 수준에 대한 응답은 역시 시니어세대(60.7%), X세대(58.5%), 베이비붐세대(56.6%), M세대(55.5%), Z세대(55.1%)의 순으로 높게 나타난다.

[표 5] 나와 타인의 준법 수준 비교

		전체	Z세대	M세대	X세대	베이비붐세대	시니어세대
전체	나의 준법 수준(A)	82.6	80.2	80.7	83.1	83.7	85.6
	타인의 준법 수준(B)	57.3	55.1	55.5	58.5	56.6	60.7
	차이(A-B)	25.3	25.1	25.2	24.6	27.1	24.9
남성	나의 준법 수준(A)	80.4	77.8	78.4	80.3	82.0	84.8
	타인의 준법 수준(B)	57.5	56.4	56.0	58.3	57.2	59.4
	차이(A-B)	22.9	21.4	22.4	22.0	24.8	25.4
여성	나의 준법 수준(A)	84.7	82.7	83.3	86.0	85.5	86.2
	타인의 준법 수준(B)	57.1	53.6	55.0	58.6	56.1	61.5
	차이(A-B)	27.6	29.1	28.3	27.4	29.4	24.7

주: 1) "귀하는 자신이(다른 사람들이) 평소에 법을 어느 정도로 지킨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해 '아주 잘 지킨다' + '비교적 잘 지킨다'의 비중임.
 2) 2020년 조사에는 "귀하는 자신이(다른 사람들이) 평소에 법을 어느 정도로 잘 지킨다고 생각하십니까?", 2022년 조사는 "귀하는 자신이(다른 사람들이) 평소에 법을 어느 정도로 지킨다고 생각하십니까?"로 일부 수정됨.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2022년).

[그림 3] 성별 나와 타인의 준법 수준 비교



주: 통계청, 사회조사(2022년).

4 재난 및 긴급 상황 발생 시 행동 요령 인지도

“Z세대의 76.9%, M세대의 71.0%가 인공호흡 및 심폐소생술을 알고 있음”

재난이나 긴급상황 발생 시 행동 요령 인지도를 세대별로 살펴보면, Z세대(90.9%), M세대(89.0%), X세대(88.6%), 베이비붐세대(86.0%), 시니어세대(65.8%)의 순으로 MZ세대의 인지도가 높은 편이다.

소화기 사용법에 대한 인지도 역시 MZ세대(M세대 83.4%, Z세대 81.7%)와 X세대(80.7%)가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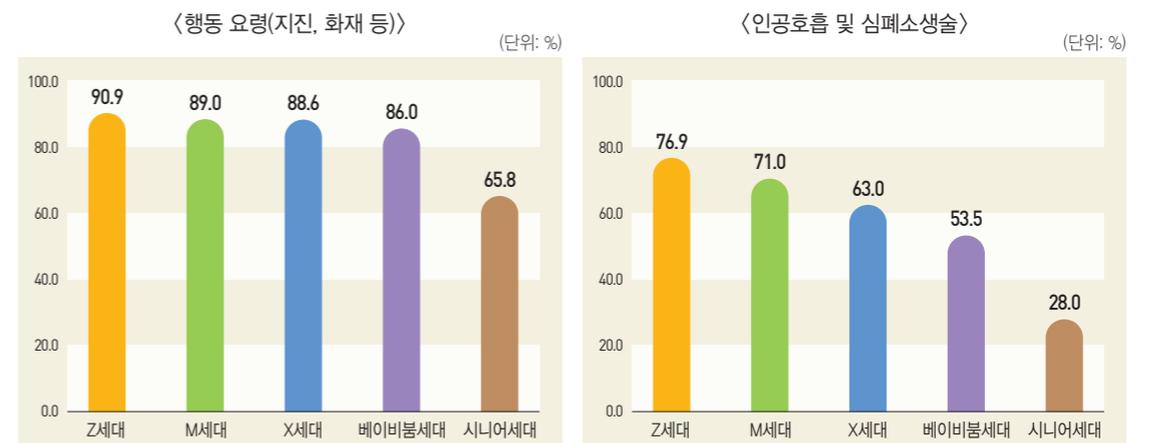
인공호흡 및 심폐소생술은 세대 차이가 더욱 뚜렷한데 Z세대는 76.9%, M세대는 71.0%가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것에 반해 베이비붐세대는 53.5%, 시니어세대는 28.0%만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6] 재난이나 긴급상황 발생 시 대처 방안

	전체	Z세대	M세대	X세대	베이비붐세대	시니어세대
행동요령(지진, 화재 등)	85.6	90.9	89.0	88.6	86.0	65.8
소화기 사용법	75.2	81.7	83.4	80.7	71.9	45.5
인공호흡 및 심폐소생술	61.0	76.9	71.0	63.0	53.5	28.0

주: "재난이나 긴급 상황 발생 시 해야 하는 행동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다' + '조금 알고 있다'의 비중임.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2022년).

[그림 4] 재난이나 긴급상황 발생 시 대처 방안



주: 통계청, 사회조사(2022년).

IV. 환경문제 인식과 방지 노력

1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남성보다 여성이, 세대별로는 M세대와 X세대가 환경문제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편”

세대별 환경문제에 대한 불안감을 살펴보면, 기후변화(폭염, 홍수 등)에 대한 불안감은 X세대(50.8%), M세대(47.8%), 베이비붐세대(46.1%)의 순으로 높으며, 미세먼지에 대한 불안감 역시 X세대(69.0%), M세대(68.7%), 베이비붐세대(65.8%)의 순으로 높다.

자녀 출산 및 양육기로, 활발한 경제활동을 하는 M세대와 X세대가 다른 세대에 비해 환경문제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성별 환경문제에 대한 불안감을 살펴보면, 불안도의 성별 격차는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6.8%p(남성 42.5%, 여성 49.3%), 유해화학물질에 대해서는 7.6%p(남성 38.7%, 여성 46.3%),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5.9%p(남성 61.7%, 여성 67.6%) 등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환경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편이다.

[표 7] 환경문제에 대한 불안감

(단위: %)

	전체			Z세대	M세대	X세대	베이비붐세대	시니어세대
	남성	여성	여성					
기후변화(폭염, 홍수 등)	45.9	42.5	49.3	42.6	47.8	50.8	46.1	38.0
유해화학물질(새집증후군 등)	42.5	38.7	46.3	36.7	47.8	47.7	43.0	32.0
미세먼지	64.6	61.7	67.6	59.8	68.7	69.0	65.8	57.0
수돗물	27.4	23.4	31.3	25.3	30.5	30.9	25.9	20.1

주: '불안하다(약간+매우)'의 비중임.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2022년).

2 환경오염 방지 노력

“MZ세대의 환경오염 방지 노력은 다른 세대보다 낮은 수준”

환경오염 방지 노력은 재활용품 분리 배출(93.3%),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85.3%),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기(73.9%), 합성세제 사용 줄이기(63.0%), 친환경 제품 구입·사용(49.9%)의 순이다.

세대별 환경오염 방지 노력을 살펴보면,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는 베이비붐세대(91.8%)와 시니어세대(90.7%)가 높고, Z세대(77.3%)와 M세대(81.9%)가 낮은 편이다. 합성세제 사용 줄이기 역시 베이비붐세대(75.8%)와 시니어세대(73.4%)가 높고, Z세대(52.5%)와 M세대(52.0%)가 낮은 편이다.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기는 노력한다는 응답이 베이비붐세대(81.5%)와 시니어세대(79.7%)가 높고, Z세대(64.9%)와 M세대(68.3%)가 낮은 편이다.

친환경 제품 구입·사용 역시 Z세대가 44.8%, M세대가 46.5%로, MZ세대는 기성세대에 비해 친환경 제품 구입·사용 비중이 낮은 편이며, 자연보호 및 환경보전 활동 참여 역시 Z세대가 28.6%, M세대가 27.4%로 다른 세대에 비해 실질적인 참여율이 낮다.

[표 8] 환경오염 방지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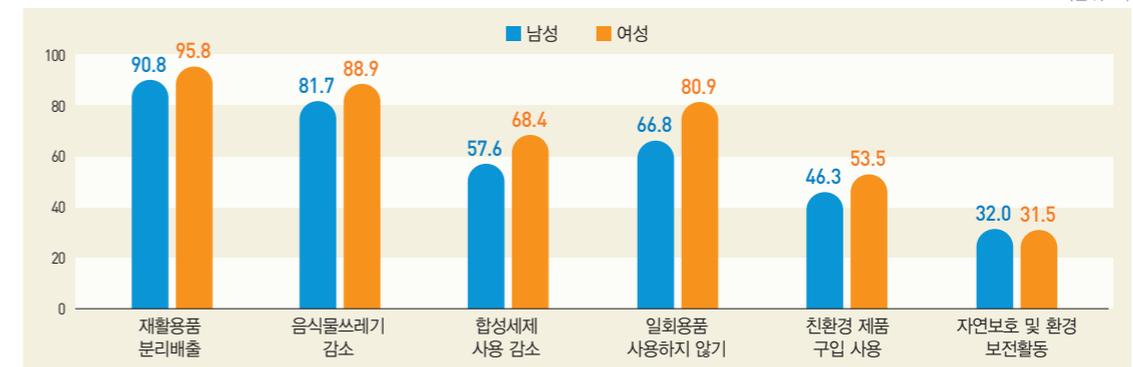
(단위: %)

	전체	성별		Z세대	M세대	X세대	베이비붐세대	시니어세대
		남성	여성					
재활용품 분리 배출	93.3	90.8	95.8	91.2	94.3	94.8	94.6	91.2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85.3	81.7	88.9	77.3	81.9	88.3	91.8	90.7
합성세제 사용 줄이기	63.0	57.6	68.4	52.5	52.0	67.0	75.8	73.4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기	73.9	66.8	80.9	64.9	68.3	77.3	81.5	79.7
친환경 제품 구입·사용	49.9	46.3	53.5	44.8	46.5	54.7	55.8	45.9
자연보호 및 환경보전 활동 참여	31.8	32.0	31.5	28.6	27.4	33.7	36.9	30.9

주: '노력한다(약간+매우)'의 비중임.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2022년).

[그림 5] 환경오염 방지 노력의 성별 차이

(단위: %)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2022년).

MZ세대가 환경문제에 관심이 높고, 환경가치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이거나, 실제 환경오염 방지 노력에 있어서는 기성세대보다 실천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MZ세대가 다른 세대에 비해 미혼 인구의 비중은 높고, 소득수준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한편 환경오염 방지 노력의 성별 차이를 보면, 재활용품 분리 배출, 음식물 쓰레기 및 합성세제 사용 줄이기,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기 등 모든 영역에서 여성의 환경오염 방지 노력이 남성보다 높은 수준이다.

항목별 성별 차이를 보면,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기가 14.1%p, 합성세제 사용 줄이기가 10.8%p,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가 7.2%p, 친환경 제품 구입·사용이 7.2%p, 재활용품 분리 배출이 5.0%p이다. 여성의 가사 전담 비중이 높을 가능성을 고려하면 환경오염 방지 노력 역시 여성의 실천율이 남성보다 높다.

3 환경보호 비용 부담

“환경보호 비용 부담에 찬성하는 비중은 X세대가 52.4%로 가장 높고, Z세대가 47.3% 수준”

성별 환경보호 비용 부담에 대한 찬성 여부를 살펴보면, 찬성한다는 비중은 여성이 50.3%, 남성이 49.9%로 여성이 0.4%p 더 높고, 반대한다는 비중은 남성이 14.9%, 여성이 13.7%로 남성이 1.2%p 더 높다.

환경보호 비용 부담에 찬성하는 비중은 X세대(52.4%)가 가장 높으며, M세대는 50.5%, Z세대는 47.3% 수준이다. 환경보호 비용 부담에 찬성하지 않는 비중은 시니어세대가 16.7%로 가장 높다.

[표 9] 환경보호 비용 부담

(단위: %)

	전체			Z세대	M세대	X세대	베이비붐 세대	시니어 세대
	남성	여성						
찬성	50.1	49.9	50.3	47.3	50.5	52.4	51.7	47.1
보통	35.6	35.2	36.0	39.0	34.6	34.2	34.6	36.2
찬성하지 않음	14.3	14.9	13.7	13.8	14.9	13.4	13.8	16.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2022년).

MZ세대는 기성세대보다 친환경적 성향이 높게 나타나지만, 다른 세대에 비해 실질적인 환경오염 방지 노력이나 친환경 제품의 구입, 환경보호 비용 부담 측면에서는 다소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기후변화 등으로 환경보호 위기의식이 실천(환경 관련 비용 지불)으로 반드시 연결되는 것은 아니며, 경제 관념에 민감한 청년층이 고가의 친환경 제품 구입 등 구매 행위에는 소극적임을 알 수 있다.²⁾

활용자료 및 용어풀이

-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조사(2020년): 2020년 11월 1일 0시 기준의 우리나라 영토 내 상주하는 모든 내국인과 외국인 및 이들이 살고 있는 거처를 조사함. 조사항목은 인구·가구 부문 55개 항목(교육, 혼인상태, 여성·출산력·아동보육, 인구이동·통근통학, 1인 가구, 주거 실태 등)임.
- 사회조사(2022년): 국민 삶의 수준과 사회적 변동을 파악하기 위해 약 1만 9천 가구를 대상으로 총 10개 부문을 2년 주기(매년 5개 부문)로 순환하는 표본조사임.
- 경제활동인구조사(2022년): 국민의 취업, 실업 등과 같은 경제적 특성을 조사하여 일자리 지원 등 고용정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월 약 3만 6천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표본조사임.
- 밀레니얼 세대(Millennial Generation, Millennials): 1980년대 초반부터 1990년대 중반 사이에 출생한 세대로 Y세대(Generation Y)로도 불림.
- Z세대(Generation Z):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중반 사이에 출생한 세대
- 엠제코세대(MZ+ECO): MZ세대와 ECO(생태, 환경)가 결합된 신조어
- 올로(YOLO): 현재 자신의 행복을 가장 중시하고 소비하는 태도(You Only Live Once)
- 미닝아웃(Meaning Out): 자기만의 신념과 가치관을 소비 행위로 표출하는 것
- 플렉스(Flex): 자신의 능력을 소비로 과시하는 것
- 재렉스: 재테크에 관심이 많으면서 적극적·합리적 소비로 현재의 가치와 행복을 추구하는 소비 형태
- 보이콧(Buycott):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고자 하는 기업의 제품,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구매하려는 노력
- 성비(Sex Ratio): 여자 100명당 남자의 수

참고문헌

강우림·김문영(2022), 「MZ세대의 라이프스타일 특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의류산업학회지』, 제24권 제1호, pp. 81~94.

김미경·장안리(2022), 「MZ세대의 환경 인식과 행동 및 소셜 미디어 역할 이해를 위한 탐색적 연구」, 『광고실학 연구』, 제15권 제3호, pp. 37~66.

매일경제(2021. 6. 18), 「MZ세대의 마음 얻지 못한 ESG는 실패한다」.

뉴시안(2022. 12. 25), 「[기획-MZ, 너 누구니] ⑩ 우리는 환경에 진심인 '엠제코'다」.

2) 엠제코세대의 대표적인 친환경 활동으로는 산이나 공원 등지를 다니며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줍기), 해변정화 봉사활동인 '비치커밍', 포장 용기 등을 배출하지 않기 위해 대화용 용기를 사용하는 '제로 웨이스트' 운동 등이 있다. 이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으나 경제적인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활동이다.